

##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의 재현 특성

김경돈<sup>1)</sup> · 한갑수<sup>2)</sup> · 윤영환<sup>3)</sup>

### Characteristics of Representing Korean Traditional Garden Style made in Foreign Countries

Kyeng-Don Kim<sup>1)</sup>, Gab-Soo Han<sup>2)</sup> and Young-Hwal Yoon<sup>3)</sup>

#### 요 약

해외에 조성된 한국 전통조경의 특성과 디자인 성향을 파악하고자 해외에 설계, 시공되어진 대표적 한국성 정원 3개소를 선정하였다. 즉 프랑스 파리공원의 한국정원과 일본 오오사카의 쓰르미공원, 요코하마의 관자정 등이다. 이들 세 공간에 대해 한국고유의 디자인 원리와 image성, 경관구성요소 등의 한국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조성된 두 곳은 직설적 공간 재현을, 프랑스 파리공원은 직설과 은유적 공간 재현방법을 응용하여 전통을 재현 하고자 하였다. 도입된 시설 및 요소들은 정자, 꽃담, 다리 등의 전통 구조물과 조산(가산), 화계, 그리고 마당개념의 공간연출 등의 요소 및 기법이 공통적으로 응용되어 한국성 image를 표현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three korean traditional gardens in France and Japan were representing the tradition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m. The concerns for analysing the korean garden made in foreign counties were focused on issue of a representation. Representing a Korean garden into three foreign parks depends on the manner of a representation, their objects and media.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ng the korean gardens that traditional elements such as a traditional pavilion, fence, madang, chosan and hwagye were generally chosen as essential elements for representing the korean tradition.

*key words: traditional garden, parvilion, fence, madang, chosan, hwagye.*

---

1) (주)일성 시설투자 : Ilsung Constructing Co. Ltd.

2)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 : The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3)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산림경영·조경학부 조경학전공 : Division of Forest Manage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Forest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 1. 서론

한국조경을 문화사적으로 비춰 볼 때 백제의 노자공이 서기 612년에 일본에 한국정원을 전파하여 일본정원의 근원을 이루게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 조경의 우수성과 장구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조경문화는 자연풍경원이면서 사의적 속성의 공통적 축을 이루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조경문화는 이미 오래 전 서양에 이국적이고 낭만적 조경요소로서의 정체성을 이식시키고 있는데 비해 한국조경의 정체성은 전혀 부각시키지 못해왔다. 영국의 Hampton Court에 중국과 일본의 조경의 도입,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원의 중국요소, 독일 루드비히성내 일본조경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동양조경의 이식의 산물이다. 현대에서 보면 1970년대 들어 한국은 중동의 건설붐과 더불어 조경설계와 시공이 해외에서 다수 이루어 졌지만 현지조경의 한계성으로 한국조경을 알릴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한국 조경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일본에 오오사카와 요코하마,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한국정원의 조성으로 한국의 조경문화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실적을 이루었다. 이들 세곳의 한국정원을 대상으로 한국성의 표현창작과 한국조경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에 와서 해외에 조성된 조경작품의 시공사례지를 대상으로 순 한국성 성격 및 공간구성요소의 고유성의 재현과 그 특성의 본질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대표작으로 알려진 해외에 시공된 한국성 작품으로는 일본 오오사카의 쓰르미 공원의 한국정원과 요코하마의 삼지공원내 한국정원,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아끌리마파시옹 공원내 서울공원 등이 있으며 이들 세곳을 대상으로 첫째, 작품의 배경분석을 통하여 조성목적과

성립배경을 조사하고, 둘째로는 공간구조 및 분석을 통하여 한국 고유의 공간성을 찾고자 하였으며, 셋째로는 세부공간 수식요소의 유형과 다양성 등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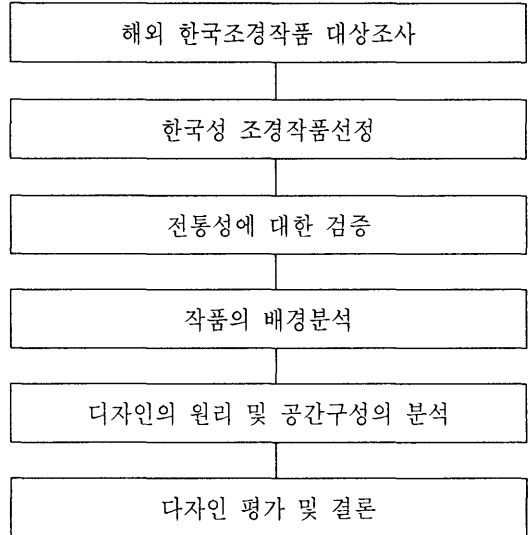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과정

### 3. 전통조경요소의 재현과 도입

한국성의 재현의 문제는 전통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되며 전통의 개념 전체와 전통과 재현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전통이란 오랜 세월을 통해 한 사회를 성격 지우는 감정과 행동방식이다(조요한, 1999). 전통은 단지 옛 것을 의미하는 정태적인 개념은 아니다. 전통은 옛 것과의 대화이고, 옛것과 현재 것의 연속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축된다. 지나고 있어야 하고, 생명력을 잃으면 전통은 단절되고 만다. 전통은 단지 물질이나 정신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몸 속에 재현된 정신과 같은 것이다. 즉 전통은 체화된 기억이라 할 수 있다(Vesley, 1983). 기억과 같이 전통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를 이끄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미래의 창조적인 행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과거의 의미는 현재의 언어로 번안될 때 포착되고, 새롭게 된다. 전통은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보전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를 보다 새롭게 하고 동시대에 맞게 번안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Gradamer, 1986).

선행 연구에서 논의 된 전통 요소의 계승에 관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통 조경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 혹은 모사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흔히 새로운 창조적 재현없이 과거의 것을 현재에 그대로 수용하는 노력은 역사주의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옛것을 단편적으로 그대로 모사하는 직설적 재현이 그러한 예이다. 이는 과거가 현재에 일방적으로 투영되는 것으로, 역사적 선례를 진부하게 반복하거나, 과거 양식을 컨텍스트를 도외시한 채 전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반해 전통의 뿌리 없이 새로운 것이나 외래의 것만을 모방, 탐닉하는 아방가르드는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여, 오래 동안 고유의 영역이 이용해온 미디움이나 표현의 사려 깊은 탐구가 없이 인간과 대지의 실존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유희로 전락할 위험을 지니게 된다.

둘째로, 전통조경을 배우고 이것을 토대로 근대적 요소를 발견하여 현재 조경에서 재현, 활용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재현은 창조(creation)와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한계를 인식한 채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곧 현대에 한국정원을 형상화시키는 것은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현재의 관점에서 추출한 특성을 설계가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조의 개념에 입각한 예술운동은 아방가르드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의 불만에서 출발하고 모순적 상황을 극화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이에 반해 재현은 백지상태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과 재현의 관계는 모순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공생적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의 방식을 직설적 재현, 추상적 재현, 해체적 재현을 구분하기로 한다. 직설적 재현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형태의 모방이라 할 수 있다. 추상적 재현은 설계가의 주관에 의해 변형되고 재창조되는 것으로 일종의 은유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추상(은유)적 재현은 전통요소를 형태나 재료, 쓰임새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 해서, 두 요소간의 구조적 혹은 관계적 동일성을 상상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조태일, 1994).

전통공간의 구성과 시설배치상의 특징성은 공간의 유형이나 각 유형별 사례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으나 한국의 전통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서로 상대되는 2개의 공간으로 구획되는 특징을 지닌 이원적인 공간구성, 소단위 공간으로 세부화되는 과정의 연속적인 공간체계, 상,하 위계성을 보여주는 위계적인 공간 질서, 궁궐, 사찰 등의 권위적 엄격성을 강조한 대칭 또는 비대칭적 공간, 주거 각 공간의 기능에 따른 내,외부 공간, 그리고 인간척도에 적합한 공간인 인간척도의 운용 등의 특징을 지닌다(안영배, 1979). 전통공간의 조성구축의 도입시설과 조성기법을 연관해 보면 정원시설물의 도입과 물의 이용, 경계영역의 설정, 차경기법의 활용, 수직적 요소를 강조한 가산의 축조, 화계 및 꽃담의 조성, 다양한 경로의 도입, 그리고 조경식물의 전통개념의 원리 따른 선택적 배식 등을 들 수 있다.

## 4. 해외의 한국성 조경작품 분석

### 4-1. 계획의 배경

#### 1) 일본 오오사카 쓰르미 공원의 한국정원

일본 오오사카의 한국정원은 일본에서 개최한 국제 꽃, 정원박람회로서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농수산부가 주관 이 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행 기관이 되어 1988년부터 1990에 걸쳐 준비를 하였다. 199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 오오사카 쓰

르미 공원에서 개최된 EXPO '90은 국제 꽃과 녹음의 박람회 조약에 의한 국제원에박람회로서 꽃과 녹음과 인간생활과의 연계를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운택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PO '90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이용한 대규모의 박람회로서 총면적이 약 140ha이고, 그 중 한국의 옥외전시장은 1,950㎡(약 590평)이다(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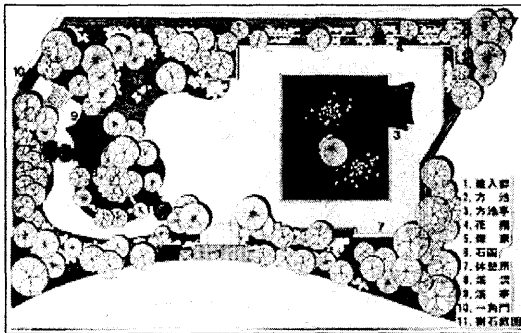


그림 4-1. 일본 오오사카 쓰르미 공원의 한국정원 기본계획

## 2) 요코하마 삼지공원안의 관자정

일본의 요코하마시와 한국의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한 문화교류 사업으로 1990년 4월 가나와현에서는 일본의 조원학회에 기본설계를 의뢰하였으며 학회에서는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후 1991년 10월 일본측의 계획위원단이 한국의 정원문화유적지를 답사한 후 정원조성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가나와 현립공원인 삼지공원이 한국의 산세와 식생이 가장 유사하여 조성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정원의 기본구상이 일본측에서 추진되어 세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1992년 봄, 일본측에서는 셋째안의 수정안이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수정을 가하여 1993년 3월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관자정의 경우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민가정원을 주경관으로 하고 촌락의 풍경과 고대 정원문화의 변천상을 동시에 조성하여야 하는 박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그림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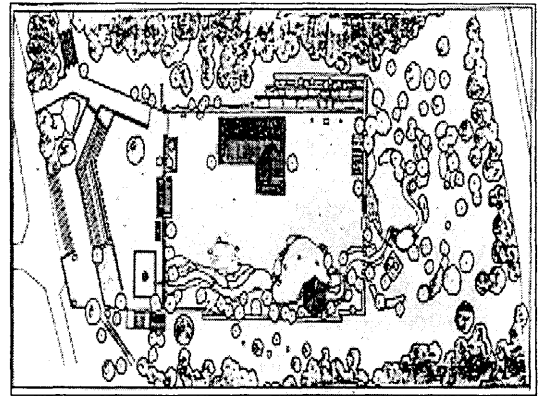


그림 4-2. 일본 요코하마 삼지공원내 한국의 관자정 기본계획

## 3) 프랑스의 서울공원

2000년 6월 서울시에서 자매도시인 프랑스 파리와 우호협력증진의 일환으로 파리지 16구 블로뉴 숲 서북단에 위치한 귀화식물이자 가족공원인 아플리아시옹 공원의 호수변에 약 4,420㎡ 규모의 서울공원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초 서울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현상공모를 시행하였다. 서울공원에서 우리 나라 조경설계에 있어서 영원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조경의 현대적으로 재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국내 유수의 설계업체들이 참여하여 오늘에 전통정원을 형상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그림 4-3).



그림 4-3. 프랑스 파리의 서울공원 기본계획

표 4-1. 대상지의 개요

구분	EXPO 한국대표작	관자정	서울공원
설계자	한림 종합조경	민경현	삼성에버랜드
국가 (위치)	일본 오오사까 쓰르미 공원	일본 요코하마 삼지공원	프랑스 파리의 아끌리따따시 옹 공원
면적	1,950m <sup>2</sup>	약 5,000m <sup>2</sup>	4,675m <sup>2</sup>
배경	EXPO'90 참가작품	가나와현- 경기도 자매결연 기념	서울-파리 시의 자매결연 기념
설계 연도	1990년	1994년	2000년
용도	EXPO- 전시공원 後- 유희공원	유희공원	유희공원

4-2. 공간 구성의 원리와 디자인의 특징

1) 일본 국제 꽃, 정원박람회의 한국 정원 전통공간을 크게 들(野)의 정원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공간과 뜰의 정원을 중심으로 한 인공적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진입공간으로부터 축을 형성하여 그 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비대칭을 이루며, 동쪽은 직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인공적인 미가 가미된 뜰의 정원으로 방지 원도의 전형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정형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수경기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서쪽 계류로부터 물을 끌어들이어서 정자 마당에는 지당을 조성함으로써 流水와 止水를 동시에 취하고자 한 것이다. 후정에 2단 화계를 두어 전통조경양식의 수직적요소를 살리고자 하였다. 2단 화계에서 1단에는 석함과 피석, 석물을 배치하고, 2단에는 굴뚝을 배치하였다. 이처럼 자연에 인공적인 시설물을 곳곳에 활용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서쪽은 곡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자연적이 미를 이루는 들의 정원으로, 造山을 만들어 한국적인 지형의 미를 표현하면서 기존의 계류와의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인 한국의 조경기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마당으로 곧바로 연결된 남쪽 진입구와는 다르게, 일각문을 거쳐 위요된 자연공간으로 진입되는 서쪽 진입구는 문을 지나거나, 자리를 건너는, 또는 물을 건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전통조경양식의 진입과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마당 공간을 두어 자칫 텅빈 공간의 무용한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은 자연적 공간과 인공적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일종의 전이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들의 정원과 뜰의 정원의 어색한 직접적 접촉을 파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곽수림대에는 방장, 영주, 봉래의 삼신산을 만들어 신선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그림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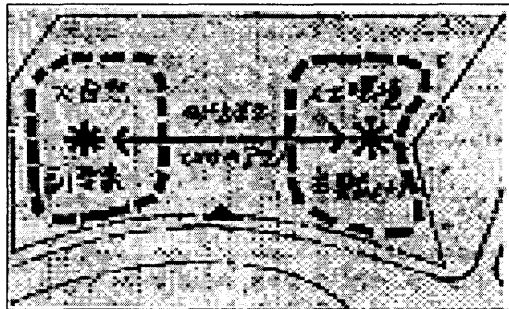


그림 4-4. 오오사까 한국 정원의 공간개념도

2) 일본 삼지공원안의 관자정

전체 부지의 가름에 있어서 천(天)에 해당하는 후원과 지(地)에 해당되는 주정, 그리고 인(人)에 해당되는 전정과 전원의 면적비를 개략 2:5:3의 비례로 땅가름하고, 관자정 조성상의 기준척도는 대문의 일문(一間)을 기준삼아 주축이 서에서 동으로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관자정의 공간구성은 천·지·인의 삼재(三才)간의 균형유지와 주종의 위계성이 엄연하게 가름되고 다시 전체로 연결되어 정원의 명칭에 함축되어 있듯이 자연속에 배

우면서 슬기롭게 공생하려는 한민족 고유의 생물적인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반영되게 하였다.

정원 공간의 기능에 따라 전원, 전정, 주장, 후정, 후원으로 가름되었다.

전원 쪽에 마을앞 동산에서 볼 수 있는 장승, 솟대, 성황당과 같은 마을 공동의 휴식 및 제천의식의 광장을 꾸며져 있다.

전정은 주택공간으로의 진입 및 매개공간으로 방치된도가 주경을 이루고, 전정이 마사토로 덮여 있어 한국 농촌의 포근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였다. 전정의 배식은 계단 좌우의 경사면에 흰철쭉을 군식하여 백의 민족의 기상을 상징화하였고, 무궁화를 식목하여 심어 한국성을 상징화하였다.

중심공간인 주장의 북쪽 산록에 축조된 통우재의 누마루를 기준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부축선이 설정되어 남쪽 뜰에 산수 경관형의 주경이 조성되었다. 주위가 낮은 구릉으로 에워싸여 있어 조산(造山)의 필요성은 적었으나, 주장이 평면 확산된 단조로움을 덜고, 주위 경사면을 뜰 안으로 연결하므로써, 들과 뜰의 조화성을 높이는 동시에, 뜰안에 조성한 암경(岩景)과 수경이 돋보이게 하는 목적에서 낮은 산을 조성하였다. 수경은 후원에서 흘러든 물이 고여서 반월지를 이루고, 서쪽으로 흐르는 계류에는 세 곳에 낮은 소폭포를 조성하여 시원스러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꾸며졌다. 주장의 남서쪽 모서리에 조성한 구형석산(龜形石山)의 거북머리는 기세가 뛰어난 높이 1.1m 가량의 큰돌로서 그 좌향이 한국을 향하게 하여 향수를 달래던 역사성을 재현하였다.

후정에는 3단의 화계를 두어, 수직적인 한국의 조경기법으로 주위의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차이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2단면에 굴뚝을 꾸미고 1단에 연꽃형의 석지가 배치되었다. 또한 동쪽 담장가에 3×7m 규모의 장독대를 설치하여 양반가의 정취를 느낄수 있게 하였다.

후원에서는 제단석 옆에 신목인 사스레피나무를 심고, 앞 공간에 선돌 두 개를 세운 거석문화공간에서도 한민족의 강인성을 찾을 수 있다. 후원 동북쪽 경사면에 조성된 井자형 우물에서 솟은 물이 용상곡수거를 거쳐 3단의 폭포를 이루고 천지에 고인물이 넘쳐 주장의 반월지로 흘러들게

꾸며져 있다(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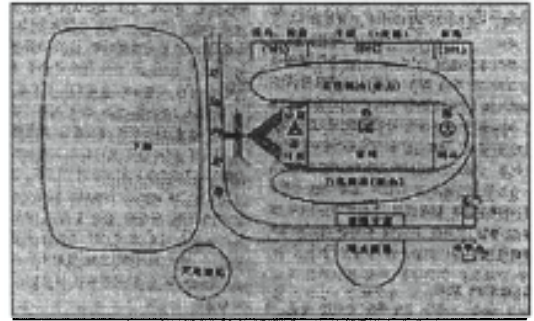


그림 4-5. 일본 요코하마의 관자정 공간개념도

### 3) 파리 서울공원

서울 공원은 외형적으로 크게 2부분으로 나뉘며, 호수를 가운데 두고 양분된 부지의 특성을 살려 호수의 우측은 정원의 내적공간으로 하고 호수의 좌측은 정원의 외적공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진입구로부터 그란뷔뜨, 뷔띠뜨뷔뜨, 발견의 정원(소나무 동산), 죽우정, 잔디마당으로 5개의 공간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그란뷔뜨와 뷔띠뜨뷔뜨 같은 마운딩 동산을 두어 진입구로부터 한국의 구릉성 지형을 상징화하며, 자연스럽게 공원안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란뷔뜨와 뷔띠뜨뷔뜨를 지나면, 실내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발견의 정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호기심 가운데 서울을 발견하게 되는 '이벤트'의 연속체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며, 죽우정(어울마당)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공원의 취지를 부각시키어 한국과 프랑스 문화와의 조화와 절정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하겠다. 죽우정(어울마당) 공간의 의미는 동양의 신비와 서양의 발견, 공원의 유희적 성격과 전통의 고매함, 현대라는 기존의 시간대와 전통이라는 공간적 구성을 상징화하는 음양사상의 또 다른 재현이라 하겠다. 어울마당에서 월하교를 건너면 잔디마당으로 이르게된다. 이는 정원의 외적 공간인 外苑으로 볼 수 있으며, 동양적인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마감하는 곳이 된다.

서울공원은 정자(죽우정)나 동산, 월대 등을 통

하여 외부와의 시각적 개방을 피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전통의 담장을 두어 외부와의 경계를 형성하고, 서울공원 주변의 프랑스 평면 기하학적인 조경양식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서울 공원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 요소를 분해하고 이곳 저곳에 흩어놓아 재조합하는 체계적 재현의 기법과 공간과 공간으로부터 이야기처럼 순차적으로 체험하면서 전개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그림 4-6).



그림 4-6. 프랑스 파리 서울공원의 공간개념도

### 4-3.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전통성 분석

정원의 구성요소는 주어진 입지경관을 모체로 하고, 돌과 물과 식물을 주소재로 하여 축조물, 석조물, 점경물 등의 인공경관이 가미되어 있다. 3곳 대상지내 정원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일본 국제 꽃, 정원박람회의 한국 대표작인 한국정원을 보면 돌재료로 한국 전통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괴석, 석함, 돌평상, 경석, 석물, 판석교 등을 사용하였고 수경요소로는 중앙의 공간 축을 기준으로 방지와 계류를 두어 대칭적 비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또한 자연미와 인공미를 상징화하는 이원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계류변에는 소폭포를 두어 청각과 시각의 경관적 구성을 이루었다. 식물의 종류는 소나무를 위주로 경관식재 하였으며,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축조물에는 방지정, 2단화계, 굴뚝, 계정, 일각문, 장식무늬담, 화담, 전벽돌담, 보안등, 석등, 석탑 등이 배치되었다.

일본 삼지공원안의 관자정에 사용된 돌은 그

형상과 기능에 따라 괴석, 제단석, 선돌, 고인돌, 석교, 난간석, 디딤돌, 음양석, 구형석산(龜形石山), 경석, 관망석 등으로 구분되어 응용되고 있으며 물의 경우 솟은 물이 계류를 이루고, 지형에 따른 낙수경이 고이는 못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수경을 이루었는데, 못은 두곳이며, 폭포는 후원에 두곳, 주정에는 세곳에 축조되었다. 관자정 조성에 쓰인 식물의 종류는 총 61종으로 교목이 21종, 관목이 19종, 지피식물이 16종 수생식물 3종, ningul식물 2종(인동덩굴, 능소화)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향토수종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생태성은 물론 형과 색, 향기 등의 음양성에 맞추어 배식하였다. 화계에는 선사시대의 후정에 심는 식용 및 약용식물을 주로 사용하고, 건물 가까이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애용한 파초와 석류나무를 식재하여, 매, 난, 국, 죽의 사군자 등 풍류적인 수종을 사용하였다. 주정에는 감나무, 모과나무,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인동덩굴과 같은 과실수와 화목을 심어 전원적인 정취와 함께 미각과 후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오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생물적인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후원에는 고산성의 자작나무, 노각나무, 싸리나무, 좀작살나무 와 신목인 사스레피나무를 제단석의 우측에 심었다.

축조물에는 주건물인 별당, 그리고 두곳의 문과 정자 외에 담장, 3단의 화계, 장독대, 진입용 돌계단 등이며 해태석, 석등, 석지, 석조, 석함, 석수, 석비, 井자형 우물, 하마대, 땃돌 등의 석조물과 편액, 주련, 풍경 등의 점경물로 꾸며져 있다.

파리 서울공원에 있어서는 서울공원에 쓰인 주요 축조물에는 주건물인 즉우정과 피세문, 불로문, 중문, 협문과 대(臺)와 단(壇)인 동/서월대, 애양단, 임해단, 그리고 시담, 관찰벽, 꽃담, 화계, 월하고 등이 있으며, 점경물로는 옥소암, 계간지 세심지, 굴뚝 등이 꾸며져 있다. 주요 석물(石物)로는 괴석으로 잔디마당과 화계 등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서울공원에서의 주요 도입 수종들은 모두 현지 수급이 가능하고 생육 지장이 없는 것으로 특히 적송은 한국 전통수종으로 대표적이며, 부지인접 녹지에도 존재하고 있어 파리시

내 최근 도시공원에도 흔히 발견된다. 주요 교목으로는 소나무(적송), 단풍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수양버들이 있으며, 주요 관목과 초본으로는 무궁화, 향매화, 국화, 담초, 꽃창포, 옥잠화 등이 있다.

### 5. 고찰

해외에 한국전통조경을 이식, 조성한다는 것은 세계에 조경문화에 한국성을 알릴수 있는 기회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프랑스에 조성된 3개의 디자인 개념과 한국성의 이미지성 그리고 세부 구성요소들의 의미를 조명해 보면 첫째로 한국정원의 대표적인 요소들 정자, 화계, 방지 담장, 계류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방식으로 직설적 재현의 입장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통의 직설적 재현은 재현이 아니라 모방에 가깝다. 어떻게 전통적 요소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현대적인 매체로써 재현하는가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와 탐색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공간을 현재의 관점에서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과거의그 공간을 조성하였던 역사적 시점으로 되돌아가 그 당시의 한국적 사상이 어떠하였는지,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아보고 그 시대적 입장에서 전통사상을 재해석하고 재음미하여 봄으로써 새로운 전통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로 전통의 재현이라는 측면이 거의 조선시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3곳의 대상지에서도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대한 전통의 재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대한 남아있는 고증적 자료가 별로 없어 재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조선시대에 제한된 동일한 경관의 조성으로 창의적인 전통의 재조합은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고대 시대의 문헌을 토대로 시대상의 풍습이나 생활상에 드러나는 세부적인 것에 대한 다각적인 재현 방법의 시도

가 필요하겠다.

표 4-2. 대상지별의 세부 구성요소 분석

구분	EXPO 한국대표작	관자정	서울공원
정(停)	방지정, 계정	육각정	죽우정
담/벽	벽돌담, 화초담, 장식무늬담	돌담, 흙담, 벽돌담, 화초담	시담, 관찰벽, 꽃담
마당	마당	통우재 앞마당	어울마당, 잔디마당
전통 식재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철쭉, 황매	소나무, 단풍, 매화, 느릅, 감나무, 모과, 매, 난, 국, 죽, 사스레피, 파초, 석류	소나무, 대나무, 참나무, 은행, 회 화, 느티, 수양버 들, 무궁화, 개나리, 철쭉, 담초, 복사꽃, 국화, 꽃창포
화계	2단의 화계	3단의 화계	화 계
섬	원도	원도	거북섬
문(門)	일각문	삼문(정문), 후문	피세문, 불로문, 중문, 협문
다리 (橋)	판석교	통돌 다리	월하교
장승/ 벽수	-	성황당, 목장승 1쌍, 숫대 1쌍	석장승
동산/ 조산	봉래, 영주, 방장의 삼심산 조산	龜形石山, 계류변의 조산	그랑뷔뜨, 쁘띠뜨뷔뜨, 석가산
대(臺)/ 단(壇)	-	-	동/서월대, 애양단, 임해단
방지	방지	前庭의 방지	-
계류	계류	계류	-
기타 시설	석탑, 석등, 석함, 괴석, 景石, 굴뚝	장독대, 소폭포, 괴석, 굴뚝, 石碑, 景石, 해태석, 석등	옥소암, 계간지, 세심지, 괴석, 굴뚝



셋째로 자연성이나 자연소재의 적용에 있어 편향된 경향으로 한정된 향토수종의 식재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자연소재나 자연성의 적용에 있어, 성격이나 이미지가 강한 전통 수목의 선택은 고요한 경관적 이미지의 전달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것이 고정된 유형으로 변화의 노력없이 그대로 사용된다면 유사한 경관만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자연소재의 발굴에 있어서도 한국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결론

한국조경의 전통공간과 요소는 같은 동양권인 중국과 일본의 자연풍경식 기초의 사의성을 지녔다는 공통적, 특징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경은 주변환경의 변화를 가능한 최소화 시켜 거스리지 아니하게 적당한 크기의 구조물, 지형과 공간 전체에서 인간척도를 중시한 배려, 그리고 환경과 조화성을 강조한 것이 매우 한국적이다. 한국 조경의 해외 문화 이식은 드문 현실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서양에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 각국에 소개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조경은 대외적으로 조경문화의 정체성의 부재라는 인식을 줄 수 밖에 없다. 이 조사는 현대에 와서 이루어진 일본과 프랑스 등에 계획되어 시공된 대상지를 선정하여 한국성의 표출과 도입요소 등의 한국적 특징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설계 특성으로 마당이라는 전통공간의 개념과 정자, 꽃담 등 정원시설물이 도입, 그리고 화계, 섬, 가산 및 조산, 문, 장승 등 전통적 요소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 조성된 한국조경은 한국고유의 전통조경을 인식시킨 좋은 기회이며 한국 조경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긍정적 효과 임에 틀림없다. 표현된 대부분은 보편화된 전통재현 방법으로서 방지, 계류, 정자, 소나무, 조산, 꽃담 등 그대로 재현하려는 직설적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설계자의 창조적 창의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표현의 다양성과 전통적 모티브를 잘 살린 공간개념, 그리고 디자인요소의 개발이 한국고유의 전통적 이미지를 계승하

는데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중국과 일본의 조경문화에 가려 그 정체성마저 세계조경사에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향후 꾸준한 노력과 한국적 이미지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및 인용 문헌

1. 김수진. 1990. 전통 조경요소의 현대적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3.
2. 도경화. 2001. 비판적 지역주의에 기초한 조경설계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66.
3. 민경현. 1994. 동양문화의 시원을 이룬 한민족의 정원시설 예술공간인 관자정의 조성배경과 의장기법. 한국정원학회지: 125-142.
4. 양병이. 1991. 한국조경에서의 전통계승. 환경과 조경 39: 40-52
5. 안영배. 1979.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96-105.
6. 이왕기(1996) 전통, 변용의 한계와 극복. 환경과 조경 110: 66-73.
7. 우경국. 1985. 조선시대 주택마당에 관한 연구. 환경과 조경. 62-66.
8. 유병림 외. 1989. 朝鮮朝 庭園의 原型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부설 환경계획연구소. 24-45.
9. 조경진, 김정호. 2001. 조경설계에 있어서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8(6): 84-90
10. 조요한. 1999.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221-226.
11. 황기원. 1984. 문화경관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 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94-107.
12. 환경과조경 편집부. 1990. 썸리 녹지에 심은 한국의 전통정원. 환경과 조경 34: 60-65.
13. Graves, M.. 1982. Representation. In Representation and Architecture. eds. O. Akin and E. F. Weinel. Silver Spring. Maryland: Information Dynamics Inc. 27-91.